

## 제13회 한일미래포럼 참가보고서

제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주예린

지난 2019년 12월 26일~28일 3일간 오사카에서 열린 제 13회 한일미래포럼에 다녀왔습니다. 포럼에 참여하게 된 계기로 친구의 소개도 있었지만 주제 중 하나가 제 고민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고른 주제는 '한일취업문제'입니다. 먼저 주제를 한일취업문제로 고른 이유는 전공으로 일본어와 일본문학을 공부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일본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거나 일본에서 취직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다른 전공 분야의 한국인, 일본인들과 이야기 해보고 싶어서 토론 주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포럼의 4가지 토론 주제 중 '한일취업문제'라는 주제로 3일간 토론 및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포럼이 시작되기 전에 했던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은 포럼에 아는 사람 없이 혼자 참여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접 본인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씩 짝을 지어 서로에 대해 잠시 이야기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을 소개하는 방식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기억에 남게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포럼이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더 풀어진 분위기에서 처음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포럼 주제별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팀 안에서 다시 한 번 간단히 자기소개를 한 후 포럼에 오기 전에 준비한 개인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포럼에서 왜 이 주제를 선택 했는지, 이 주제 안에서 본인이 토론하고 싶은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 3분정도 간단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한 후에 나온 여러 가지 주제 중 관련 있는 주제끼리 합치고 다듬으면서 최종적으로 3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서로의 나라에 취직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한국과 일본의 취업시장 차이, 세 번째로 지금 전세계 취업시장의 공통적인 화두인 인공지능에 대한 것 이렇게 3가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우선 자신이 준비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 3가지 주제에 대해 하나씩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며 보다 더 다양한 의견이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정리해 두고 다음으로 각 주제 별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조원을 나누어 세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전 단계에서 나온 의견들을 뒷받침해 줄 그래프, 기사 등의 자료를 찾아 정확한 사실과 애매한 것들을 정리하고 다시 토론하면서 발표 틀을 만들어갔습니다. 첫 날 포럼은 여기까지로 끝낸 후 호텔에서 짐 정리를 하고 각 조에 지급된 식비로 팀원들끼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사를 따로 하지 않고 다 같이 모여서 한 덕분에 팀원 간의 사이가 더욱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둘째 날은 다음 날 진행 되는 발표를 대비해 전 날 모은 자료를 파워포인트에 정리하고 번역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주어진 발표 시간에 맞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발표 흐름과 발표자를 정하는 등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다같이 노력했습니다. 3가지 주제에 맞춰 나눠서 준비하던 것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마지막으로 발표 연습을 한 후 통역 담당에게 각자 준비한 대본을 보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발표와 질의응답을 하고 다른 팀의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참여한 포럼에서 완벽하게 준비 못 했다는 점에 스스로 아쉬운 점도 느꼈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일미래포럼에 다시 참여 해 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토론을 하고 발표 준비를 하면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번 포럼에서 스스로 느낀 점을 보완해서 다음 포럼이나 그 외 활동에 참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포럼은 진작 끝났지만 잊지 않고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